

아름다운가게 포천점과 慈善행사도 함께

포천중·일고총동문회 한마음 축제 9월28일

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회(회장 조성인)는 오는 9월28일 2008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4회를 맞는 포천중·일고총동문 한마음축제는 현 조성인 총동문회장이 처음 개최했으며 매년 정기행사로 정착, 이제는 단순한 동문들만의 자축행사 수준을 넘어 불우이웃돕기 등 정기적 자선행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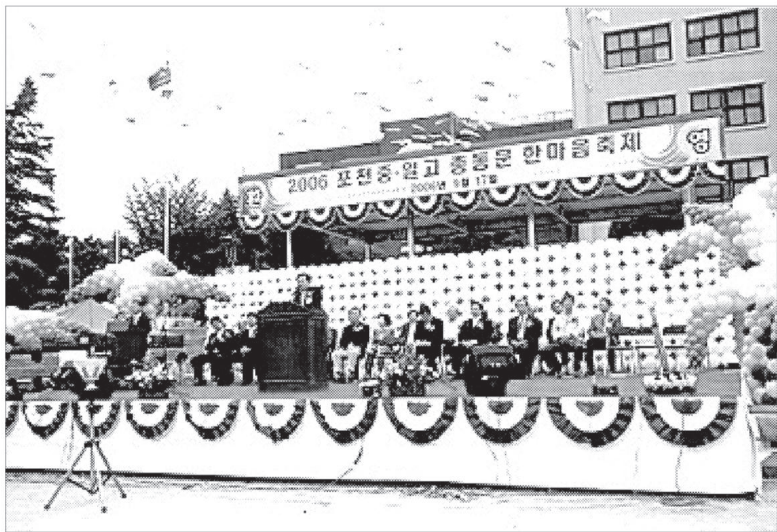
지난 축제 당일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천시 농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즉석에서 포천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포천쌀 1,000포대를 모아 포천시에 불우이웃돕기용으로 기증한 바 있으며, 올해도 자신단체인 아름다운가게 포천점과 함께 자선기증품 등을 수집 판매하는 등 불우이웃돕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축제때 매년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효자, 효부, 의인 등을 발굴 시상하는 동문효행상을 제정 포상하고 있으며, 포천의 축산기술발전을 위하여 매년 우수 영농학생에게 송아지 1마리씩을 기증하고 있다.

조성인 총동문회장은 "포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문회 등 각종 모임 및 단체들이 조속히 집단이기에 되고 강조하고 "포천중·일고 총동문 한마음축제도 동문들간의 화합은 물론, 지역내 타 학교 동문회와의 연계 등 포천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 축제의 경우도 포천중학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로 동문가족 및 학부모 등 참여폭을 확대하는 물론, 각 기수별로 포천



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회는 오는 9월28일 2008포천중·일고등학교 총동문 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관내 타학교 동년배 졸업동기들을 특별 초대하는 등 참가범위를 개방했으며 앞으로도 포천중·일고

총동문회는 포천시민과 함께 호흡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공무원 친절교육 및 계약관련 청렴도 교육

경기도포천교육청, 단위학교 교감과 행정실장 대상

경기도포천교육청은 8월29일 포천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교감, 행정실장 10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교육 및 계약관련 청렴도 향상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매년 공무원 친절·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포천교육청은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마인드와 전화응대 방법,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클린계약 제도에 대해 단위학교 관리자인 교감과 행정실장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현직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민원인의 민원 만족도를 제고시켜,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에 핵심이 되는 친절의식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또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전자청구 등을 통한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과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했다. 오정순 경기도포천교육장은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관할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우리 교육청이 최우

수교육청으로 경기도교육감 표창을 수상하는 등 친절교육에 앞장서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Stand(고객을 보면 일어서서), See(반가운 눈으로 상대를 보고), Smile(미소지으며), Speed(신속하게), Satisfaction(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등 5S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경리담당 주무가 주관되어 실시된 청렴도 향상 교육에서는 계약관련 부패지수 0(Zero), Smile(미소지으며), Speed(신속하게), Satisfaction(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등 5S운동 추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가산초등학교 황애진 행정실장은 "이번 교육이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실시되길 바란다"며,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약관련 제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8월29일 포천교육청에서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4개교, 고등학교 7개교의 교감, 행정실장 106명을 대상으로 공무원 친절교육 및 계약관련 청렴도 향상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교육추진위원회' 구성 제안

조돈창 교육위원, 학교장 대상 특강에서 밝혀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오정순)은 9월2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9월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13명의 전임교장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장 및 교육청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조돈창 교육위원의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 학교CEO가 열어갑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임교장의 소개 및 교육장의 환경인사와 조돈창 교육위원의 '학교의 최고경영자(CEO)로서의 학교운영과 관리자로서의 자세'에 대해 특강이 있었다.

오정순 경기도포천교육장은 전임교장의 환영사를 통해 "선현의 일이 살아있고, 인심 좋고, 자연과 어울리는 지역적 특성과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학교경영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여 포천교육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돈창 교육위원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할 몇 가지 덕목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 제자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계획하고 고민하고 실행하여, 학생과 학교, 그리고 포천 더불어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될 세계 일류의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지역사회인사·교직원 등 교육수요자 및 당사자가 함께 모여 포천교육의 특색발현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추진력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가정·포천교육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각급 학교장과 교육청 직원들은 학생과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경영 및 지원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을 평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포천교육청은 9월2일 교육청 3층 대회의실에서 9월1일자 인사발령을 받은 13명의 전임교장을 비롯하여 각급 학교장 및 교육청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조돈창 교육위원의 특강을 실시했다.

왕방산에 찾아온 가을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산을 좋아하면 인자하고 바다를 좋아하면 지혜롭다는데...” 가을 어를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산을 좋아하면 인자하다는 말을 오늘 친구와 함께 엄마들을 따라 왕방산을 오르며 실감했다.

개학을 하고 처음 휴일을 맞아 우리는 학교 뒷산인 왕방산을 등산하기로 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 엄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하셨다. 사람들도 모두 웃는 얼굴로 “안녕하세요”하고 인사를 해서 엄마께 “와, 엄마 포천에 사는 사람 엄청 많으시네요” 했더니 “아는 사람 아니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인데?” 하셨다.

“산의 품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모두 반가운가?”

산 속에서는 곳곳에서 다람쥐들이랑 청솔모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돌밭을 지나 조금 걸다보니 우렁고개 중간 약수터라고 표시된 표지판이 보였다. 목이 마른 데 잘 됐다며 약수터로 향해 가는데 “투두투 투두”하는 소리가 들렸다. 알밤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했다. 왕방산에 벌써 가을이 찾아왔던 것이다. “밤나무가 어느 것이지?” 하고 위를 올려다보니 나무들이 언제부터 그 자리에서 자랐던 것인지, 키가 커서 하늘을 찌르고 있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 있어서 어떤 나무가 밤나무인지도 모를 정도였다.

그때 알밤이 떨어진 것을 알고, 양식을 모아두려는 것인지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에서 쪼르르 내려오다가 나무 아래 서 있는 나를 보더니 다시 쓴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아무도 몰래 가을이 오고 있는데 다람쥐는 벌써 겨울을 준비하는 듯했다. 나무 아래에는 밤금 떨어진 알밤 두 톨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네 톨이 있어야 하나씩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물찾기를 하듯 알밤을 찾아다녔다.

우리 보다 앞서 그곳을 찾아와 밤을 주우시던 할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손 좀 빌려봐”하시더니 여기저기 주머니에서 알밤을 꺼내 우리에게 한 움큼씩 나누어 주셨다. 너무나 감사했다.

약수터에 앉아 알밤을 까먹으며 “엄마, 산이 인자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인자하신 거예요?” 하고 여쭙더니 “음, 그건... 산에 있는 사람이 인자한 거지. 자연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불평불만 하지도 않고 생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셨다.

“찾아서 주면 갈까?” 하다가 우리 뒤에 산에 오를 사람을 생각하며 남겨두기로 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우리 옆을 지나가는 아주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는 왕방산에 도토리까 풀넝이라고 한다. 겨울에 청솔모가 먹을 것이 없으면 다람쥐를 잡아먹기도 한다고 하던데... 왕방산 가득 떨어진 도토리 열매를 보며, 내가 알밤을 조금 주워 먹어도 다람쥐랑 청솔모의 겨울 양식을 걱정 없을 것이라 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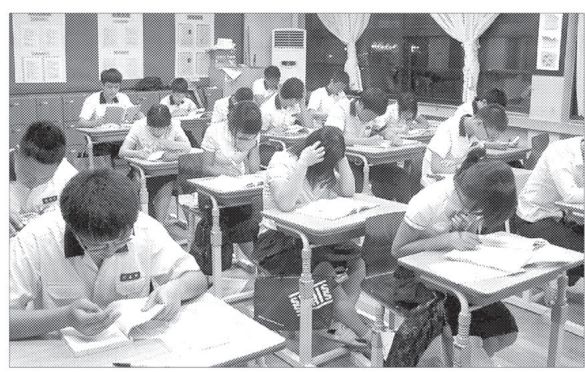
방과후 활동으로 실력 향상 도모한다

경북중 교과관련 및 특기·적성개발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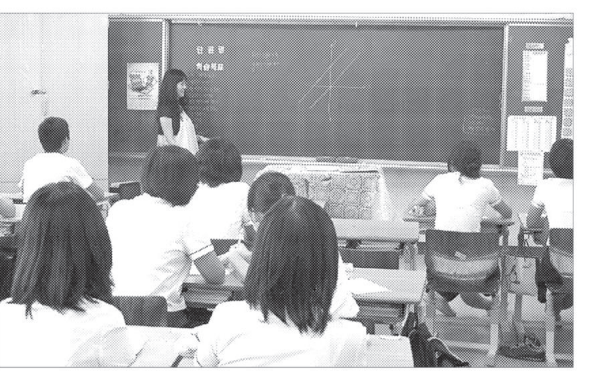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는 1학기에 이어 2학기 시작 첫날부터 전교생이 방과후활동을 시작했다. 9월1일부터 23학년 교과관련 프로그램과 12학년을 대상으로는 특기·적성 개발을 위한 7개의 프

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1학기에 3학년은 수준별 100시간, 2학년은 프로그램별 72시간을 운영하였는데 2학기에는 바쁜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3학년은 수준별 70시간, 2학년은 프로그램

별 40시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동섭 경북중학교 교장은 “2학기에는 1학기 방과후활동 과정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하여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방과후활동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3학년 대상 야간자기주도학습도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경북중에서 열리는 학생과 교사의 만남이 ‘희망 경북인’을 가꾸어 가기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북중학교는 1학기에 이어 2학기 시작 첫날부터 전교생이 방과후활동을 시작했다.



BEST 보육프로그램 12 안전 프로그램

안전교육의 기준 지켜 구조화 된 프로그램 제공

지난 호에 교통안전과 관련한 '자전거 면허시험제도'를 소개했다. 며칠 전에 교통단원의 마무리 활동으로 자전거 면허시험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만 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난이도의 필기시험도 보았다. 면허증을 받아 든 아이들의 함박웃음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데 크게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교육, 재난대비교육으로 나뉜다. 교통안전교육부터 설명 하자면, 실시주기는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2시간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기타 교통안전관련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교육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을 이용한 교육, 실습교육과 현장학습,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로서 본원에서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급별로 나뉘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진으로 건물 붕괴되고 지하층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으로 포천소방서, 포천시, 6군단, 시민안전봉사대, 한국전력, KT,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31개 유관기관단체에서 700여명의 인력과 중앙 119 구조대 헬기, 소방차 등 66대의 중장비가 동원되는 대대적인 재난대비 훈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함을 느꼈는데,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마음놓고 탈 곳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의문 때문이었다. 물론 안전한 곳에서 자전거를 타야 함을 충분히 교사나 부모님들이 지도하여야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상북도 상주에 '자전거 박물관'이 있다. 지나가는 길에 들려 보았는데 마침 상주시장님께서셨다. 상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되어 있어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있고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해 주셨다.

이날 포천시 어린이집 영유아들도 참여하여 평상시 원에서의 훈련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광경을 신기해하며 지켜보았다. 이런 경험들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임이 분명하다. 각 원에서 하는 위의 설명한 안전교육 외에도 교사 안전교육, 부모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한 환경이 모든 교육적인 조건에 우선하는 것임을 마음을 새기며,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이 체계화하여 구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무리한다. (011-9717-5206)

교육이 시대에 맞물려 자전거로 통근하는 직장인이 많아졌고 거기에 따르는 교통사고도 늘어 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포천에도 생겨나길 기원해 본다.

재난대비교육의 경우 실시 주기는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이며, 교육내용은 화재·붕괴·폭발·화생방 사고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위험물 취급요령,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훈련이며, 교육방법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사고사례분석이다.

실제적인 예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지난 5월27일 대진대학교에서 어린이집 영유아 및

어린이집마다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김경선 관아어린이집 원장 kksn64@nmail.net

함께 공부해요

계고(稽古) 편 68

楊子曰事父母乎 自知不足者其舜乎 不知得而久者事親之謂也 孝子是愛日也 楊子曰 楊子 이름은 옹해, 자는 자운 서한사람) 不可得而久는 불가능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즉 오래도록 할 수 없는 것임.

양자가 말하기를 “부모를 섬기는데 스스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순(舜)이다. 오래 할 수 없다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일을 말한 것이니 효자는 날(日)을 사랑한다” 하였다. “舜은 천하를 소유하는 부(富)와 천자의 존귀함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꼈으니, 그의 부모를 사랑하는 뜻이 얼마나 간절했나를 알 수 있다. 부족함을 느끼

는 그 마음이야말로 효자의 마음가짐이다. 부모가 살아 계신 동안에 시간을 아껴 그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리고, 힘을 다하여 봉양해서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011-354-6485) 양주승 본지 자문위원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 미국영어

2. <컴퓨터 고장> : (2)
* 어디가 고장인지 모르겠네요
1) 아이던노우 왓스루영위드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it.)
2) 썸스루영 위드스컴퓨터 (Something wrong with this computer.)
* 은종일 전기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네요
다일렉트릭시리얼스 앤드 인포메이션 (The electricity is cut, and on and off all day long.)
* 지난 밤 눈이 많이 와서 외부케이블에 문제가 있나봐요
메이비데이터스 썸스프라임 언더케이블아웃사이 애쥬이해버 헤비스노우레스나잇
(Maybe there's something problem on the cable outside as we have a heavy snow last night.)
* 마우스는 이상이 없는데, 커서'가 없어졌네요
더머우스이스 스틸굿워킹, 벤티커서이스 디서퍼드 (The mouse is still good working, but the cursor is disappeared.)
* 아마 바이러스가 걸린 것 같네요
메이비릿해스 어바이러스 아이겟츠 (Maybe it has a virus, I guess.)
문의: 윤중성 (017-723-4977) colyoon@nate.com

